

## 사설시조의 형태구조 연구

원 용 문\*

### <국문초록>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평시조, 옛시조, 사설시조를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옛시조는 3장 7구 14절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이 연구는 1) 시조와 비시조, 2) 옛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3) 사설시조의 구조 순으로 논의하였다. 1)에서는 2음보에 44조로 된 작품,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시조의 틀과 율조에 거리가 먼 작품, 쓰여진 말이거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시나 한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들은 비시조로 보아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2)에서는 옛시조는 형식을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옛시조로 간주하였고, 사설시조의 경우는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옛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 보면 된다. 3)에서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 된 것이라 하였다. 시조의 3장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①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② 중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③ 종장에서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④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⑤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⑥ 초·중·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대 87절까지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평시조, 옛시조, 사설시조, 형태구조, 정격시조, 파격시조, 비시조, 장, 구, 절

\* 한국교원대

## I. 서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구조에 대하여 형식적 구조와 비형식적 구조라는 이원론적 관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극은 여섯 가지의 질적 부분과 네 가지의 양적 부분을 가진다고 보았다. 여섯 가지의 질적 부분이란 줄거리, 인물, 언어, 사상, 상경(狀景), 선을 등이고, 네 가지의 양적 부분이란 서곡(序曲), 삽화(挿話), 결미(結尾), 합창(合唱)<sup>1)</sup> 등이다. 여기서 질적 부분인 여섯 가지는 비형식적 구조를 나타내고, 네 가지의 양적 부분은 형식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조란 랜섬의 시 분석에 있어서 사용한 용어이다. 랜섬의 견해는 “시인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논리적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운율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랜섬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란 보통 시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의미 즉, 패러프레이즈(paraphrase)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가리킨다.

또 구조란 개념 속에는 유형으로서의 동일구조라는 관점과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특수구조라는 관점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작품은 각각 다른 그 자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리켜 복수론(複數論)이라 한다면, 유형에 따른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보는 입장을 단수론(單數論)<sup>2)</sup>이라 한다. 이처럼 구조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거니와, 이러한 구조문제를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나누어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때 심층구조의 분석은 시 속에 내재한 의미망이 어떻게 결구(結構)되어 있는가에 관심하면서 단순한 의미만이 아닌, 의미를 넘어선 암시역이나 상징역까지를 구명함으로써 그 정신 본질을 해명하

1) 김대행, 한국시가 구조연구, 삼영사, 1982, 14쪽.

2) 위의 책, 15쪽.

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신 본질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형상화함에 있어 동원한 율격 장치나 구상화 등의 표현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표층구조에 대한 해명이 된다.<sup>3)</sup>

이러한 논리로 보면 형식구조나 표층구조는 형태구조에 해당하고, 비형식구조나 심층구조는 의미구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이미 예고한 대로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려는 것이고, 논의의 편의상 시조와 비시조, 옛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사설시조의 구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사설시조의 구조에서는 각 장의 구절 수가 어떤 형태로 증가하는지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던 것이다.

## II. 사설시조의 형태구조

형태란 사물의 생김새를 알아보는 것이다. 부분의 집합과는 달리, 전체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대상이나 모양이 어떻게 되었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학에서 형태란 말은 장르란 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론을 진화론의 이론에서 차용해 왔다... 분명히 문학사에 있어서의 형태의 분화는 자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이다. 곧 제 특질의 상위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단일한 것이 다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동종(同種)이 이종(異種)으로 이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sup>4)</sup>

상기 인용문을 보면 문학 장르의 발전이론을 생물의 발전이론 즉 진화론에서 차용하였다. 필자는 사설시조를 평시조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

3) 오승희, 현대시의 의미와 구조, 시조와 비평사, 1989, 164쪽.

4) 누시노브·셰이트린, 백효원 역, 문학원론, 문경사, 1949, 118쪽.

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처럼 단일한 것이 다수한 것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동종이 이종으로 이행하면서 사설시조라는 장르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문학의 장르가 다르면 그 형태 또한 달라지고, 그 형태가 다르면 장르 구분을 달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평시조의 형태와 사설시조의 형태는 달라지고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울러 한 문학 장르의 형태를 알아보려면, 그 장르의 형식개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1) 사설시조는 초장·중장·종장에 두 구절 이상 또는 종장 초구라도 평시조 그것보다 몇 자 이상으로 되었다. 초장·종장이 너무 길어서는 아니 된다.<sup>5)</sup>
- 2) 초·중장 모두 제한 없이 길고 종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것이다.<sup>6)</sup>
- 3) 그 형식은 사실적이었던 만큼 과거의 모든 구속을 타파하라 하는 데서 훨씬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여 초·중·종 3장중에 어느 한 장이 임의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초장은 거의 길어지는 법이 없고, 중장이나 종장 중에 있어 어느 것이라도 마음대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대개 종장이 길어지는 수가 많다.<sup>7)</sup>
- 4) 장시조(사설시조, 장형시조)는 단시조의 규칙에서 어느 두 구 이상이 각각 그 자수가 10자 이상으로 벗어난 시조를 말한다. 이 파격구는 대개가 종장(제2행)의 1·2구다. 물론 종장도 초장도 벗어나고 3장이 각각 다 벗어날 수도 있다. 이 장시조는 창에서도 만황청류나 농악조로 부르는 것으로 가사나 잡가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sup>8)</sup>
- 5) 「교본역대시조전서」에 수록된 3,335수의 시조 중에서 사설시조는 250수인데, 이의 산출 방법은 다음의 기본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초장: 40자 이내, 중장: 41자 이상, 종장: 40자 이내-중략-사설시조의 기본형은 시조 3장 중 초·종장의 자수는 대체로 옛시조의 중장의 자수와 동일하고, 중장은 옛시조의 최장 자수보다 길어진 시조를 말하는데, 이에는 사설시조

5)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78, 117쪽.

6)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0, 254쪽.

7) 조윤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112쪽.

8) 이태극, 시조개론, 새글사, 1959, 73쪽.

250수 중에서 204수가 된다.<sup>9)</sup>

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설을 인용했지만, 더 이상 인용해도 그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제 상기 인용문들의 공통점을 가려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설시조도 초·중·종 3장으로 분단된다. ② 3장 중에서 자수든 구절 수든 늘어나지 않는 곳이 없다. ③ 대체로 중장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④ 초장과 종장 중에서는 종장에서 늘어나는 빈도수가 많다. ⑤ 종장 첫 음보가 3자 고정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면서 실제로 사설시조 작품의 형태분석을 시도해보면, 그 짜임새가 어떤 구조를 이루었지 저절로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정격시조(평시조)인지 파격시조(엇시조, 사설시조)인지를 구분하려면 먼저 정격시조에 대한 룰을 정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참고삼아 이태극의 시조형식론을 소개해 본다.

이것은 3장(행) 6구로 총 자수 44자 내외의 구성을 가진 정형시인데, 매구의 자수 기준은 7자 중심이요, 종장(제3행) 첫 절만이 3자 고정과 6자 내외로 된 「七七·七七·九七」조 기준의 고유시인 것이다. 또 이 한 구를 각각 2분절로 나누어서 12분절로 된 「三四·三四, 三四·三四, 三六·四三」조를 기준으로 한 정형시로 보아도 좋다. 각 시조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조가 다 이 단시조에 드는 것이다.<sup>10)</sup>

상기 인용문을 보면 시조는 3장(행) 6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매구의 자수 기준은 7자 중심이란 것이고, 또 매구를 2분절로 나누어 12분절로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장 3·4·3·4, 중장 3·4·3·4, 종장 3·6·4·3조를 기준으로 한 정형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조 형식에는 3장 6구설, 3장 8구설, 3장 12구설 등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으

9)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82, 47쪽.

10) 이태극, 앞의 책, 69쪽.

나, 필자는 3장 6구설을 지지한다고 다른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다.

또 율격적인 면에서는 ① 초장 3·4·4·4, 중장 3·4·4·4, 종장 3·5·4·3이라고 하는 설과 ② 초장 3·4, 3·4, 중장 3·4·3·4, 종장 3·6·4·3이라고 하는 설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렇다면 필자의 견해는 이태극설과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는데, 필자는 단시조의 기준형을 3장 6구 12절이라 하고, 이태극은 3장 6구 12분절이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또 한 가지는 시조의 율격을 아무리 자수율이나 음수율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도 자수율이나 음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우리들이 시조의 종류를 알아낼 때에 그것이 평시조인지, 엇시조인지, 사설시조인지를 판별할 때에 일일이 글자수를 따져가면서 확인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왜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조의 형식을 설명하면서, 자수율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꿰어 맞추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필자는 시조 형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수율 적용을 부정하고 그 대신 구수율 적용을 제창한다. 더 엄밀히 말하면 구절수로 시조 형식을 설명하고 시조의 형태도 이러한 구절 수에 의하여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절 이상이라 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의 장시 형태를 취한 시조를 일컫는 말이라 규정하였다.<sup>11)</sup>

그 다음은 어떤 자료를 텍스트로 하여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박용수 편저의 「한국시조대사전」(아세아문화사, 1992)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정병욱 편저의 「시조문학사전」(신구문화사, 1970)을 분

11) 원용문, 문학의 해석과 방법, 이회문화사, 1997, 38-39쪽.

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책에는 2,300여 수의 시조가 실렸다고 하니, 이들 작품을 검토하면 사설시조의 구조적 특징이 어느 정도 판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시조와 비시조

정병욱의 「시조문학사전」에는 정확하게 2,376수의 시조가 실렸다. 이 중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형시이면서, 우리의 고유시인 '시조'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시조와 비시조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는 것이다.

石崇이 죽어간제 무어슬 가져가며  
 劉伶의 분토 상에 어니 술이 오르더니  
 아회야 薑 가득 부어라 사라신제 먹으리

평시조의 형식은 대체로 초·중·종 3장으로 분단된다. 각 장은 2구로 분단되며, 다시 각 구는 2음보 또는 2마디로 나뉜다. 그래서 한 장이 4분단되는 것이다. 그 결과 시조 한수를 3장 6구 12음보라 하기도 하고 3장 6구 12절이라 하는 것이다. 시조에는 기준 음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장 3434, 중장 3434, 종장 3643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초장 3444, 중장 3444, 종장 3543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어느 설을 따르던 간에 종장의 첫마디는 3자 고정이라는 규칙이 있다. 이것이 3음절 이상 되거나 3음절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곳 말고는 각 마디에 1·2음절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비록 정형시이지만 음수율에 융통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조를 정형이비정형(定型而非定型) 또는 비정형이정형(非定型而定型)이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옛시조가 보통 5천 수 가량 된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런 규정

을 잘 지켰고, 이런 규정을 잘 지킨 작품을 평시조라 부르고, 틀을 잘 지켰다고 해서 정격시조라 한다. 엇시조나 사설시조는 이러한 정격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격시조 또는 파격시조라 하는 것이다. 상기 인용 작품을 보면 초·중·종 3단으로 분단되었다. 그리고 각 장은 2구로 나뉘어, 6구가 되었으며, 각 구는 다시 2마디로 나뉘어 모두 3장 6구 12절의 형식에 맞는다. 그 음수율은 초장 3434, 중장 3444, 종장 3643으로 되었고, 종장의 첫마디 또한 3음절 고정이라는 규칙을 잘 지켰다. 그러나 이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시조문학사전」을 보면 도저히 정형시인 시조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江湖 동실 白鷗로다  
 偶然히 맞튼 춤이 지거구나 白鷗 등에  
 白鷗야 성너지마라 세상 더러 흐노라

이 작품의 작자는 정철의 것이라 되었는데 진위 여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다만 이 작품을 시조로 볼 것이냐 아니라고 할 것이냐 하는 점만을 따져보고자 한다. 초장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중장을 보면 4음보에 3444조로 되어 있으니 시조의 정형에 맞는다. 종장도 4음보로 되었고 음수율도 3543조로 되었으니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초장은 2음보로 구성되었으니, 완전히 한 개의 구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래서 3434조나 3444조로 되어야 할 율격이 44조로 되었다. 3장 6구 12음보가 되어야 하는데, 3장 5구 10음보로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한 개의 구가 완전히 부족한 것도 정형시인 시조로 간주해야 되는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관전으로는 이 작품을 '시조가 아니다.' 즉 '비시조'로 간주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만약에 이것을 시조로 본다면 변태적인 시조나 기형적인 시조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구차스런 명칭을 붙여가면서까지 시조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시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窮達浮雲 ㄱ치 보야 世事 이저두고  
 好山佳水の 노논 뜯을  
 猿鶴이 내빈 아니어든 어너분이 아르실고

‘窮達浮雲같이’를 한 음보로 보아야 할지 두 음보로 보아야 할지 판가름이 안 된다. ‘궁달부운’과 ‘같이’를 나누어 두 음보로 볼 수도 있고, 두 낱말을 합쳐서 한 음보로 계산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더라도 초장 때문에 시조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종장도 4음보로 구성되었고, 음수율도 3644로 계산할 수 있어, 시조의 정형이나 율격에 맞는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음보도 2음보 즉 두 마디로 되었고, 율격도 44조가 되어 한 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3장 6구의 시조에서 한 구가 완전히 생략되었으면 비시조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중국의 한시 중에 절구나 율시는 한 구는커녕 한자만 부족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형시인 시조에서 한 구가 모자란다는 것은 6분의 1이 정형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찌 정형시로 간주하며 시조로 판가름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구절 수가 늘었으면 엇시조나 사설시조로 간주할 수 있는데 구절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시조’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치여다 보면 풀은 하늘이요  
 내려다 보면 白沙地 땅이  
 (…………)게 누을 바라고 살나

이 작품은 이희승본(李熙昇本) 해동가요(海東歌謠)의 무명씨부(無名氏部)에 실려 있다. 그리고 초·중·종 3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시조

라 할 수도 있다. 종장의 괏호 부분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구를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공란으로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3장이 모두 음보울이나 음수울 면에서 맞지 않아, 이런 유도 시조로 인정해야 되는지 의심이 간다. 초장을 4음보로 계산하면 3224조가 되고, 2음보로 계산하면 56조가 되어, 어느 쪽으로 살펴봐도 시조의 울격과는 거리가 멀다. 중장도 마찬가지로, 4음보로 계산하면 3232조가 되고, 2음보로 계산하면 55조가 되어 역시 시조의 틀과 격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종장은 괏호 속에 어떤 구절이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4음보에 3543조나 3643조가 되어야 하는 기본 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냥 “누구를 바라고 살아가나”라는 정도의 산문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상기 작품을 ‘비시조’로 간주하려는 것이고,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다.

洛東江上에 仙舟泛하니 吹笛歌聲이 落遠風이라  
 客子停驂 聞不樂은 蒼梧山色 暮雲中이로다  
 至今에 鼎湖龍飛를 못니 슬허 호노라

위의 작품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우리의 고유문학이요 전통시가인 시조로 보기는 어렵다. 초장은 4음보에 5555조로 되었고, 중장은 4음보에 4446조로 되었고, 종장은 4음보에 3543조로 되어 억지로나마 시조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거나 아니면 한자어구라도 우리말화 한 한자성어라야 되는데, 상기 작품은 완전히 한시의 7언 절구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시로 보아야 한다. 한시의 첫 행 “洛東江上 仙舟泛”은 우리말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시처럼 “낙동강 위에 좋은 배를 띄워놓고”라 해석해야 된다. 제2행 “吹笛歌聲落遠風”은 “피리소리와 노랫소리는 먼 바람에 떨어진다.”라고 한시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제3행 “客子停驂聞不樂”은 “나그네 멍에 말을 멈추는

소리 반갑지 않고”라 해석하고, 제4행 “蒼梧山色暮雲中”은 “창오산 산 빛은 저녁 구름에 싸였구나.”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처럼 한시나 한문을 해석하듯이, 읽어나가야 되는 글까지 우리의 고유 전통문학인 시조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한시를 시조화 하느라고 한시의 제1행으로 시조 초장의 전구를 만들고, 한시의 제2행을 시조 초장의 후구를 만들었다. 같은 수법으로 한시의 제3행을 시조 중장의 전구를 만들고, 제4행을 시조 중장의 후구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 채울 한시의 시구가 없으니까, 작자가 임의로 “至今에 鼎湖龍飛를 못내 슬허호노라.”라는 구절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그러니 상기 작품은 시조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한시 장르로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春風杖策 上蠶頭<sup>하</sup>여 漢陽形址를 歷歷히 둘러보니  
 仁王 三角은 虎踞龍盤으로 北極을 피얏고  
 終南 漢水는 金帶相連<sup>하</sup>여 久遠<sup>호</sup> 氣象이  
 萬千歲之無疆이로다  
 君修德 臣修政<sup>하</sup>니 禮儀東方이 堯之日月이요  
 舜之乾坤이로다

위 작품은 초·중·종 3장으로 분단된다. 초장은 5음보, 중장은 10음보, 종장은 6음보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나누는 사람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니 그 형태면에서 사설시조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문장을 보면 한문 문장에 가깝지 국어 문장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子曰 死生이 有命이요 富貴在天이니라. 王蠋이 曰忠臣은 不事二君이요 烈女는 不更二夫니라. 嚴父는 出孝子하고 嚴母는 出孝女니라. 酒中不語는 眞君子요 財上分明은 大丈夫니라.

여기 인용문은 「明心寶鑑」의 글을 몇 구절 적은 것이다. 「春風杖策」이란 시조의 문장이나 이 「明心寶鑑」의 문장이나 대동소이하다. 아무리 시조의 형식이나 율격에 근접했더라도 한문 문장으로 쓴 것까지 시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상기 「春風杖策」이란 글은 우리의 고유시요 전통시가인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정병욱 편저의 「시조문학사전」에는 이러한 한시나 한문으로 된 작품이 50편 가량 실려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 2. 옛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시조문학사전」을 보면 이것을 옛시조라고 해야 할지 사설시조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옛시조는 3장 7구 14절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의 장시 형태를 일컫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기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옛시조와 사설시조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한 절(음보)로 보고, 어디까지를 두 절(음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작품을 직접 분석해 가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다.

金化 | 金城 슈슛대 半단만 어더 조고만 말마치 옴을 뭇고

(1) (2) (3) (4) (5)

조죽 니죽 白楊 箸로 지거 자내 자소 나는 매 서로 勸 홀만 정

(1) (2) (3) (4) (5)

一生에 離 別 누 모로 미 그 願 인 가 호 노 라

(1) (2) (3) (4)

상기 작품의 형태를 보면 초장은 5절(음보)로 되었고, 중장도 5절(음보)로 되었고, 종장은 4절(음보)로 되었다. 그러니까 종장은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 맞고, 초장과 중장에서만 한 절(음보)씩 구절 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럴 경우 이것을 평시조로 볼 것이냐, 엇시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는 엇시조를 3장 7구 14절 이상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잣대로 재단하면 예의 작품은 평시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초·중·종 3장 중 어느 곳에선가 한 구가 늘어나서 7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14절 이상이라 한 것도 7구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해당되는 조건이지, 모두 뭉뚱그려서 14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별로 따졌을 때 한 절(음보)만 늘어난 것은 그냥 평시조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씩오리라 씩오리라 세혁사 늑모얼네 당줄감아 씩오리라

(1) (2) (3) (4) (5) (6)

반공 윤무중에 싸엿소나 구머리 잠군에 홍농화 긴코

(1) (2) (3) (4) (5)

그중에 덧거리 잇고 말잡듯고 토김톡 잘맞는 넌은 너연인가

(1) (2) (3) (4) (5) (6)

위의 시조는 출전이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로 되어 있는 작자 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형태구조를 보면 초장이 3구 6절, 중장이 2구 5절, 종장이 3구 6절로 구성되었다. 그러니 초장에서도 한 개의 구가 늘어났고, 중장에서도 한 개의 구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한 개의 구 즉 2절이 늘어났을 경우는 엇시조로 보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초장에만 일어나도 엇시조이고, 중장에도 일어나서 두 군데가 한 구씩 늘어났어도 마찬가지이다. 초·중·종 3장 모두가 한 구씩 늘어나서 총 3구가 늘어났어도 이것은 엇시조이지, 사설시조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호호 먹새그려 또호호 먹새그려

(1) (2) (3) (4)

곳 것거 算노코 無盡無盡 먹새그려 이몸 주근 後면

(1) (2) (3) (4) (5) (6)

지게우히 거적 더퍼 주리히 미여 가나 流蘇 寶帳의 萬人의 우리네나

(7) (8) (9) (10) (11) (12) (13)

어옥새 속새 덤가나무 白楊수페 가기곳 가면 누른 히 흰 돌 그논비

(14) (15) (16) (17) (18) (19) (20) (21)

골근 눈 쇼소리 브람 불제 뉘 호호 먹자 홀고

(22) (23) (24) (25) (26)

호물며 무덤우히 진나비 포람 불제 뉘우춘돌 엇더리

(1) (2) (3) (4) (5)

너무 잘 알려진 송강 정철의 사설시조 「장진주사」이다. 이 작품을 사설시조의 효시 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 형태 구조를 보면 초장은 2구 4절로 평시조 형태를 취하였다. 중장은 3구 5절로 엇시조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런데도 이 작품을 사설시조로 간주하는 것은 중장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설시조 형태를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는데, 상기 작품은 중장만 따져도 13구 26절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위 작품을 사설시조라 칭했고, 이 작품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장형시조가 없었기 때문에 사설시조의 효시 작품이라 인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설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3장 모두가 사설시조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초장 한 장만 2구 이상 즉 4절 이상이 길어져도 사설시조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장이 길어져도 또는 중장이 길어져도 마찬가지다. 3장 중 어느 한 장이 4절 이상 길어져도 사설시조이고, 두 장이 길어져도, 심지어는 3장 모두 4절 이상 길어져도 사설시조라 칭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님이 가오실 제 노고 네을 두고가니

(1) (2) (3) (4)

오노고 가노고 보너노고 그리노고

(1) (2) (3) (4)

그 중에 가노고 보너노고 그리노고란 다 몰속

(1) (2) (3) (4)

지쳐바리고 오노고만 두리라

(5) (6) (7)

상기 작품의 출전은 「최남선본 청구영언」이다. 작자 연대 미상의 작품인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엷시조인지 사설시조인지 분간할 수 없다. 초장과 중장은 2구 4절(음보)씩으로 되어 평시조의 형식과 같아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중장은 헤아리는 이의 주관에 따라서 7절로 계산할 수도 있고, 8절로 계산할 수도 있다. 전자처럼 헤아리면 엷시조가 되고, 후자처럼 헤아리면 사설시조가 된다. 그러나 시조의 종장 제2음보는 평시조이든 사설시조이든 5음절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가노고 보내노고”를 한 개의 절로 계산하였다. 그래서 모두 7절로 보았고, 한 개의 장이 8절 미만이어서 이 작품은 엷시조라고 본다.

새악시 書房 못마자 애쓰다가 주근 靈魂

(1) (2) (3) (4)

건삼밭 죽삼되야 龍門山 開骨寺에 니빠진 늘근 줌놈 들뵈나 되앗다가

(1) (2) (3) (4) (5) (6) (7) (8)

잇다값 쏘나 𪛗려온제 슬써겨 불가 흐노라

(1) (2) (3) (4)

앞의 작품은 종장이 길어진 경우인데, 이 작품은 중장이 길어졌다. 이 작품도 얼핏 보고서는 엷시조에 해당하는지 사설시조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기 어렵다. 초장은 2구 4절, 중장도 2구 4절로 되어 평시조와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중장은 4구 8절로 되었으니, 사설시조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겠다. 필자는 사설시조의 형태를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설명했는데, 여기서 3장이란 사설시조도 초·중·종 3장으로 3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8구는 시조의 한 장이 2구로 이루어졌으니, 적어도 그 갑절인 4구는 되어야 모두 합쳐서 8구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3장에 고루 늘어나서 8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3장 중 어디에선가 4구 이상이 되어 시조 한편이 8구 이상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6절 이상이라는 말도 어느 한 장이 4절의 배가 되어 8절이 되었을 때를 상정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3장 8구 16절 이상이란 시조 한편을 뭉뚱그려서 규정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체해 둔다. 그러나 엷시조니 사설시조니 하는 것은 3장을 각기 따져서 일어난 현상을 두고 이야기한 것임을 알아야겠다. 시조의 한 장이 3구 6절 이상이면 엷시조, 시조의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초·중·종 3장 중에서 어느 한곳에 한 구 이상 늘어나면 엷시조, 한 장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본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다.

### 3. 사설시조의 구조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일 때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설시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장 모두가 길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3장 중 어느 한 장에서 1구 2절이 늘어났으면 엷시조, 2구 4절이 늘어났으면 사설시조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늘어나는 절(음보)의 수는 작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또 초장이 늘어난 경우, 중장이 늘어난 경우, 종장이 늘어난 경



우 등 다양해서 사설시조의 기준 형태를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정병욱 편저의 「시조문학사전」에 실린 사설시조 작품 수가 몇 수나 되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는 모두 2천 3백여 수의 시조가 실렸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2백 6십여 수가 사설시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각시님 옛썬든 얼굴 저 건너 너외에 혼노 옷쪽 선노 슈양버드나무

(1) (2) (3) (4) (5) (6) (7)

고목 다 되야 석어 스러진 광디둥거리 다 되단말가

(8) (9) (10) (11)

절머쏘자 절머쏘자 세다섯만 절머쏘자

열흐고 다섯만 절무량이면 니 윈디로

상기 작품의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의 형식과 율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초장은 5구 11절로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논자에 따라서 6구 12절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누누이 밝혔지만 시조 3장 중 어느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보아야 하고, 그런 점에서 위 작품은 사설시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본다. 시조의 한 장은 2구 4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갑절인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간주한다는 것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이외에도 초장이 길어져서 사설시조가 된 작품들의 위에 매겨진 번호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58, 90, 108, 109, 209, 253, 310, 425, 463, 519, 569, 579, 643, 667, 797, 861, 920, 1043, 1163, 1542, 1762, 1804, 1849, 1854, 1976, 2020, 2177, 2221, 2252, 2256, 2367

② 중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山밧틱 집을 지어두고 넝 것 업셔 暮식으로 네어시니

(1) (2) (3) (4) (5)

밤中만 ㅎ야셔 비 오는 쇼리는 우루룩 쥬루룩 몸에 옷시 업셔 草衣를

(1) (2) (3) (4) (5) (6) (7) (8) (9)

입어시니 술이 다 드러나서 울긋불긋 불긋울긋

(10) (11) (12) (13) (14)

다만지 칩든 아니ㅎ되 임이 불가 ㅎ노라

(1) (2) (3) (4)

위의 작품은 중장이 길어진 사설시조의 예이다. 초장은 5절, 종장은 4절이니, 평시조의 격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장만은 7구 14절이니 구절 수가 상당히 늘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필자는 시조의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길러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 외에 중장이 늘어나서 사설시조가 된 작품들이 많으니 예를 들어보겠다.

- \* 20, 25, 28, 35, 37, 40, 43, 49, 60, 64, 65, 70, 72, 75, 88, 90, 105, 109, 128, 136, 137, 141, 173, 185, 196, 209, 238, 253, 261, 269, 314, 315, 321, 322, 323, 330, 350, 352, 354, 379, 387, 398, 399, 407, 413, 436, 474, 475, 481, 487, 499, 509, 517, 519, 526, 540, 548, 558, 561, 567, 569, 579, 590, 622, 629, 631, 632, 634, 641, 642, 643, 645, 650, 651, 653, 667, 690, 691, 692, 699, 705, 719, 720, 721, 725, 766, 768, 788, 789, 797, 798, 801, 809, 817, 818, 819, 820, 821, 825, 835, 839, 844, 846, 857, 861, 880, 893, 899, 908, 909, 918, 919, 970, 972, 980, 990, 1017, 1022, 1035, 1041, 1054, 1060, 1063, 1072, 1074, 1078, 1099, 1100, 1104, 1108, 1109, 1110, 1118, 1127, 1137, 1163, 1174, 1186, 1188, 1191, 1204, 1209, 1243, 1259, 1260, 1270, 1271, 1280, 1305, 1310, 1311, 1312, 1313, 1336, 1339, 1353, 1357, 1369, 1374, 1375, 1401, 1402, 1407, 1409, 1410, 1431, 1442, 1447, 1449, 1459, 1460, 1486, 1509, 1524, 1526, 1547, 1548, 1563, 1581, 1597, 1607, 1657, 1677, 1684, 1689, 1693, 1699, 1713, 1722, 1731, 1739, 1758, 1777.

1802, 1804, 1810, 1812, 1820, 1831, 1845, 1846, 1847, 1848, 1849, 1850, 1854,  
1855, 1857, 1864, 1867, 1868, 1874, 1889, 1890, 1894, 1908, 1913, 1914, 1915,  
1916, 1919, 1922, 1934, 1936, 1947, 1949, 1950, 1975, 1977, 1979, 2004, 2020,  
2023, 2025, 2035, 2040, 2077, 2082, 2083, 2101, 2108, 2177, 2180, 2186, 2190,  
2192, 2198, 2203, 2208, 2214, 2221, 2224, 2234, 2248, 2252, 2254, 2256, 2257,  
2266, 2269, 2272, 2274, 2281, 2282, 2283, 2331, 2339, 2341, 2359

③ 종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얼굴 조코 뜻 다라온 년아 밋정조차 不貞호 년아

(1) (2) (3) (4) (5)

엇더호 어린눔을 黃昏에 期約호고 거중 뒹바다 자고 가란 말이

(1) (2) (3) (4) (5) (6) (7)

츠마 도와 나는

(8) (9)

두어라 娼條治葉이 本無定主호고 蕩子之探春 好花情이 彼我的 一般이라

(1) (2) (3) (4) (5) (6) (7)

허름홀줄 이시라

(8) (9)

사설시조 중에서 종장이 길어진 예를 들어본 것이다. 초장은 5절, 중장은 9절, 종장도 9절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필자는 시조의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상기 작품에서는 종장도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고, 종장도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사설시조에서 장이 길어지는 것은 이처럼 어느 한 장에서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장 또는 삼장 전체에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도 종장이 길어진 경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23, 40, 43, 64, 137, 173, 322, 387, 499, 577, 625, 627, 1035, 1054, 1074, 1104, 1108, 1109, 1127, 1163, 1204, 1321, 1353, 1505, 1693, 1758, 1810, 1814, 1831,

1849, 1850, 1874, 1916, 1919, 1934, 1975, 1977, 1979, 1980, 2004, 2028, 2077,  
2080, 2198, 2208, 2272, 2282, 2359

④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음보)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밖은 깊혀 삼경에 니루엇고 구진비는 오동에 훗날릴제 이리 궁글 저리 궁글  
(1) (2) (3) (4) (5) (6) (7) (8)

두루 생각다가 잠못 이루에라  
(9) (10)

동방에 실솔성과 청천에 쓴 기러기 소리 사롬의 무궁훈 심회를 짝지어 울고 가는  
(1) (2) (3) (4) (5) (6) (7) (8)

저 기력아  
(9)

갓득이 다 석어 스러진 구뵤 간장이 이밤 식우기 어려웨라  
(1) (2) (3) (4) (5)

필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위 작품의 초장은 10절로 되었고, 중장은 9절로 되었고, 종장은 5절로 되었다. 늘 되풀이하여 이야기하지만 시조의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본다. 그러니 초장은 5구 10절로 되고, 중장은 4구 9절로 되었으니, 초장과 중장이 함께 길어진 사설시조라고 하겠다. 이 외에도 이런 요건을 갖춘 작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90, 109, 209, 253, 519, 569, 579, 643, 667, 797, 861, 1163, 1804, 1849, 1854,  
2020, 2177, 2221, 2252, 2256

⑤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世上 富貴人들이 人生을 둘만 녀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로노고  
(1) (2) (3) (4) (5) (6) (7)

먹고 놀 줄 모로거던 죽을 줄을 어이 알니 石崇이 죽어갈제 무슨 寶貨 가져가며  
 (1) (2) (3) (4) (5) (6) (7) (8)

劉伶의 무덤우희 어니 술이 이르던고  
 (9) (10) (11) (12)

흐물며 青春日將暮호의 桃花 | 亂落호니 이가치 조흔 씨에 아니 놀고 어이리  
 (1) (2) (3) (4) (5) (6) (7) (8)

중장과 중장이 함께 길어진 사설시조의 예를 들어본 것이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초장은 7절, 중장은 12절, 종장은 8절이다. 시조의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사설시조로 간주할 수 있다 하였으니, 중장은 6구 12절, 종장은 4구 8절로서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작품 외도 중장과 중장이 함께 길어진 사설시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40, 43, 64, 137, 173, 322, 387, 499, 809, 1035, 1054, 1074, 1104, 1108, 1109, 1127, 1163, 1204, 1353, 1693, 1758, 1810, 1831, 1849, 1850, 1874, 1916, 1919, 1934, 1975, 1977, 1979, 2004, 2077, 2198, 2208, 2272, 2282, 2359

⑥ 초·중·종 3장 모두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저건너 신진사집 시령우희 언치거시 쉼은 청청둥 청정미 첨자조쌀이  
 (1) (2) (3) (4) (5) (6) (7) (8)

아니 쉼은 청청둥 청정미 첨자조쌀이나  
 (9) (10) (11) (12)

우더 땃똥이 다섯 아래더 땃똥이 다섯 문안 땃똥이 다섯 문밖 땃똥이 다섯  
 (1) (2) (3) (4) (5) (6) (7) (8)

사오이십 스무 땃똥이 모화관 숲버들 궁계셔 밋헤 땃똥이논 무겁다고 땃똥  
 (9) (10) (11) (12) (13) (14) (15)

웃땃똥이논 무에 무구우냐 갓잡스럽다고 땃똥 어니 땃똥이 슈땃똥이나  
 (16) (17) (18) (19) (20) (21)

아마도 숙네문밖 씩 너나라 청피 팍피 칠피 빚다리 이문동 도저골

(1) (2) (3) (4) (5)

쪽다리 것너 첫지 들지 셋지 넷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지 미나리 논에서

(6) (7) (8) (9) (10) (11) (12)

코를 줄줄 흘니고 머리 푸러 산발 흐고 눈을 희번덕 이며 다리 쏘아 너밀 면서

(13) (14) (15) (16) (17) (18) (19)

용을 니는 밍송이 슈팅송이나

(20) (21) (22)

초장·중장·종장 등 3장이 모두 길어진 사설시조의 예를 들었다. 필자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초장은 12절, 중장은 21절, 종장은 22절이다. 이것을 구로 계산하면 초장은 6구, 중장은 10구, 종장은 11구이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등 3장 모두가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정병욱 편저의 「시조문학사전」에는 이 작품 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작품이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둔다.

⑦ 하나의 장에서 가장 많은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초장:

陽春이 布德하니 萬物이 生光輝라

중장:

우리 聖主는 萬壽無疆 흐스 億兆 顯戴 己 흐고 群賢은 忠孝 흐야 愛民 至 治 흐고 老小

(1) (2) (3) (4) (5) (6) (7) (8)

에 벗님 네도 無故 無恙 커늘 名妓 歌伴 期會 흐야 細樂을 前導 흐고 水陸 珍味 五六 獸에

(9) (10) (11) (12) (13) (14) (15) (16)

金剛山 도라 들어 絶代 名勝 求景 흐고 醉 한 잠에 꿈을 꾸니 꿈에 호 늪은 쥬이 邀我

(17) (18) (19) (20) (21) (22) (23) (24)

引導 흐야 吳楚 東南 景과 齊州 九點 故園을 歷歷 히 盤迴 흐며 其間에 英雄 豪傑 들의 즈취 를

(25) (26) (27) (28) (29) (30) (31) (32)

무를썬에 石鐘聲에 씨거고나 朝飯을 지촉하야 望月懷陵으로 正菴齋室 露月光風 水  
 (33) (34) (35) (36) (37) (38) (39) (40)  
 洛山寺 玉流川에 塵纓을 씨스 後에 文殊菴 中興寺에 軟泡杯酒하고 晴日에 登臨白雲  
 (41) (42) (43) (44) (45) (46) (47) (48) (49)  
 峯하니 咫尺天門을 手可摩라 萬里江山 遠近風景이 眼底에 森羅하야 丈夫의 胸襟  
 (50) (51) (52) (53) (54) (55) (56) (57)  
 에 雲夢을 삼켰는 듯 브른 비 내려오니 簫鼓는 晴天하야 洞壑이 올리는 듯 山映樓  
 (58) (59) (60) (61) (62) (63) (64) (65) (66)  
 올라안즈 花煎에 點心하고 伽藍스고 皎은고에 가즌 稽笛 섯것는디 男歌女唱으로 終  
 (67) (68) (69) (70) (71) (72) (73) (74)  
 日토록 노니다가 扶旺寺 긴 洞口에 軍樂으로 드러간이 左右에 섯는 將承 分明이 반  
 (75) (76) (77) (78) (79) (80) (81) (82) (83)  
 기는 듯 往來遊客들은 못나 부러 호뎃더라  
 (84) (85) (86) (87)

중장:

암아도 壽域春臺에 太平閒月은 우리론가 호노라

위 작품의 출전은 「校注海東歌謠」이다. 그리고 작가는 김수장으로 되  
 어 있어 시대적 배경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설시조는  
 대체로 구절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장이 많이 늘어  
 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마다 그 길이가 달라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절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최장 얼마까지 늘  
 어난 작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놓은 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기 작품을 보면 중장이 43구 87절까지 늘어났으니, 현존 사설시조 작  
 품 가운데는 가장 길이가 긴 작품으로 간주된다. 사설시조가 구조적으  
 로 구절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마는 87절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보통 시조의 한 장이 2구 4절로 되어 있으니,  
 상기 작품은 평시조 한 행의 21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 Ⅲ. 결론

본론에서는 사설시조의 형태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조의 형태를 종류별로 알아보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평시조는 3장 6구 12절 이상이라 하였고, 엇시조는 3장 7구 14절 이상이라 하였고,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구절 수를 파악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구수율보다는 자수율 적용에 관심을 두었는데, 필자는 자수율은 고려하지 않고 구수율만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엇시조인지 사설시조인지를 구분할 때에는 시조 3장에서 장별로 파악하게 되어 있어, 사설시조는 어느 한 장이 4구 8절 이상이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정병욱 편저의 「시조문학사전」을 보면 도저히 시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작품들이 게재되었다. 평시조의 한 장이 4음보에 3434조나 3444조의 율격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데, 2음보에 44조가 되어 완전히 한 개의 구가 떨어져 나간 작품들이 있었다. 또한 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초장은 3224조가 되고, 중장은 3232조가 되어 시조의 틀과 율조에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 있었다. 또 다른 예는 시조 3장의 정형은 갖추었지만 쓰여진 말이나 어구가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도 우리말화 한 한자성어가 아니라 한시나 한문문장으로 된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의 고유시요 전통시가인 시조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시조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음은 엇시조와 사설시조의 구분 문제이다. 구절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 엇시조이고, 또 얼마만큼 늘어난 것이 사설시조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른 글에서 엇시조는 3장 7구 14절 이상, 사설시조는 3장 8구 16절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작품 분석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시조 한편이 3장 14절 이상은 되는데, 7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이다. 이런 경우 장별로 따졌을 때 한절(음보)만 늘어난 것은 그대로 평시조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장별로 보아 1구 2절 이상 늘어난 것만 엇시조로 간주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초·중·종장 모두 1구씩 늘어나서 총 3구가 늘어났어도 장별로 따져서 1구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엇시조로 간주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사설시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장별로 따졌을 때 어느 한 장에서 2구 4절 이상 늘어나면 사설시조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엇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구 한 개가 늘어난 경우, 사설시조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 장 한 개가 늘어난 경우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사설시조의 구조는 시조 1편이 3장 8구 16절 이상으로 되었다. 그리고 초·중·종 3장 중에서 어느 한 장이 2구 4절 이상 늘어났으면 사설시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 첨가 현상은 너무 다양하게 일어나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① 초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② 중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③ 종장에서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장에서 길게 늘어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초장과 종장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종장에서 구절 첨가 현상이 더 일어났음을 밝혀둔다. 그 외 ④ 초장과 중장에서 동시에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⑤ 중장과 종장에서 동시에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⑥ 초·중·종 3장 모두에서 동시에 절(음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리고 사설시조의 구절 수는 3장 중 어느 한 장에서 최소 8절부터 최다 87절까지 늘어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본 것이다.

그래서 사설시조를 자유시의 원류라고 주장한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정병욱 편저,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0.  
한춘섭·박병순·리태극 편저, 한국시조큰사전, 을지출판공사, 1985.  
박을수 편저, 한국시조대사전(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

#### 2. 연구논저

- 누시노브·췌이트린(백효원 역), 문학원론, 문경사, 1949.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78.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0.  
조윤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리태극, 시조개론, 새글사, 1959.  
서원섭, 시조문학 연구, 형실출판사, 1982.  
원용문, 문학의 해석과 방법, 이회문화사, 1997.  
원용문, 시조문학원론, 백산출판사, 1999.  
임종찬, 현대시조론, 국학자료원,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Won Yong-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morphological types of Sijo in an effort to determine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and it's also attempted to present standard about how to discriminate Pyong-sijo, Eos-sijo and Sasul-sijo from one another from a morphological standpoint. It's suggested that Sijo with three Jangs, six verses and 12 stanzas or more, with three Jangs, seven verses and 14 stanzas or more, and with three Jangs, eight verses and 16 stanzas or more should respectively be called Pyong-sijo, Eos-sijo and Sasul-sijo.

After what Sijo was and what's not were discussed, how to distinguish Eos-sijo from Sasul-sijo was described, and finally, the structure of Sasul-sijo was presented. As for Sijo and non-Sijo, the types of works that consisted of three Jangs, like Sijo, yet didn't suit its framework and Yuljo and we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ere regarded as non-Sijo. Concerning discrimination between Eos-sijo and Sasul-sijo, the type of Sijo that included one more or higher number of verse(s) and two more or higher number of stanzas in one of three Jangs was defined as Eos-sijo, and the type of Sijo that involved two more or higher number of verses and four more or higher number of stanzas in one of three Jangs was called Sasul-sijo. In other words, Eos-sijo contained one more verse in one of three Jangs, and Sasul-sijo included one more Jang in one of three Jangs. The sort of Sijo that contained one more Jang in one of three Jangs could be viewed as Sasul-sijo. Regarding the structure of Sasul-sijo, there should be three Jangs, eight verses and 16 stanzas in one piece of Sasul-sijo. Any type of Sijo that contained two more or higher number of verses and four more or higher number of stanzas could be called Sasul-sijo. Such an addition of verse and stanza could be done in various ways. The examples were ① adding stanzas to the first Jang, ② adding

stanzas to the second Jang, ③ adding stanzas to the final Jang, ④ adding stanzas to both the first and second Jangs, ⑤ adding stanzas to both the second and final Jangs, and ⑥ adding stanzas to all the first, second and third Jangs at the same time. Besides, there was an extremely broad gap between the numbers of verse and stanza in Sasul-sijo, which ranged from a low of eight stanzas to a high of 87 ones in one of three Jangs.

*Keywords* : Pyong-sijo, Eos-sijo, Sasul-sijo, morphological structure, regular Sijo, irregular Sijo, non-Sijo, Jang, verse and stanza

논문투고일 : 2005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5년 7월 7일